

# 건축디자인 향상 30년 노력, 도시 바꾸고 문화 만들다

## 도시 건축 품격을 높이자

### <2>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구마모토현은 1988년부터 112개의 건축물을 '아트폴리스' 시스템을 통해 구마모토시를 중심으로 도시 곳곳에 지었다. 공공 및 민간건축물 건축주가 예산 규모를 결정해 아트폴리스 참가를 신청하면 아트폴리스 커미셔너(최고관리자)가 지역교수로 구성된 어드바이저의 조언을 받아 지명, 제안 접수, 공개 현상설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가를 선정한다. 1년의 설계 및 협의, 1년의 공사 등을 거쳐 2년 내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이 보통이다.

112개 가운데 90개는 커미셔너가 건축가를 직접 지정했으며, 12개가 제안 그리고 10개가 공개 현상설계 절차를 거쳤다. 현재 커미셔너는 이토 토오요(77)씨다. 지난 2005년 취임했으며, 2013년 "자연에 열리고 사람과 조화한다"를 아트폴리스의 핵심 주제로 하고, 이어 2017년 8월부터 5개월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든다"는 테마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건축전 2017'을 주최했다.

어드바이저는 가즈라 히데아키(구마모토대학 준교수), 스에히로 카오루(규슈대학 준교수), 소가베 마사시(가나자와대학 교수) 등 지역대학 교수들이 맡았다. 아트폴리스 추진감독위원회, 사무국 등의 지원 조직이 있으며, 전문직으로 구성된 현청 내 아

트폴리스·유니버설디자인팀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30년간 3명이 커미셔너를 맡을 만큼 지역 내에서 상당기간동안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지역과 소통하는 시스템도 마련해 지역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는 건축디자인 비용의 증가로 건축예산의 10~20%가 추가됐지만, 이후 자연스럽게 디자인 설계비를 높게 책정하는 추세가 정착됐다. 구마모토현청 건축주택국 주임주사 타지마 리호씨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그 주변, 시민,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도 한다"며 "자가입찰제에서도 과감히 벗어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을 철폐해 갔으며, 지금은 일본의 다른 도시는 물론 한국 등에서도 모범사례로 배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초창기인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112개의 3분의 2를,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1~2개씩 설치하고 있다. 민간건축물은 199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추진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보육원, 체육관, 자원, 방송사육 등이 수상했다. 디자인·설계 비용의 증가 부담으로



인해 아트폴리스 시스템을 거쳐 신축한 민간건축물은 30년간 8개에 불과하다. 재정 지원이 없고, 기술적인 조언 외에 별다른 혜택이 없는데도 까다로운 행정절차만 추가돼 민간건축주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구마모토현은 민간건축물의 직접 참여를 독려했던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도시 건축물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16년 7.0 규모의 강진이 구마모토를 강타하면서 아트폴리스는 가설주택과 커뮤니티(공동) 시설을 짓는데 집중되고 있다. 커미셔너의 주도로 디자인된 아트폴리스 목조 가설주택들이 110곳에 4303호가 들어섰으며, 43개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했다.

이 공동이용시설 디자인에는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유명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는 구마모토시의 시영주택. 독특한 디자인과 입주민을 배려한 시설 배치로 2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 구마모토시의 중앙경찰서. 1990년에 건립됐지만, 여전히 디자인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건축가들이 참가했으며, 민간재단의 후원으로 11개의 공동이용시설도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다움"이란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하며 유일한 것을 발굴하는 것으로 광주의 정체성과도 연관된다"며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를 모델로 해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여가는 광주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본격화

### 호남지역 국회의원들 모임 구성...목포~강릉 새철도 구축도 촉구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세종을 경유한 호남선 KTX의 직선화 추진에 본격 나섰다.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 호남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약칭 세호추)'을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모임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호남 KTX 노선이 오송역을 우회함에 따라 호남에서는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세호추) 모임은 세종을 경유한 호남선 KTX 노선 직선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평택-오송 간 KTX 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가 천안과 세종, 공주로 이어지는 신설 노선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호남 KTX 직선화 추진을

위해 최대한 빨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서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원 모임은 오송을 경유한 목포~강릉 간 한반도 X축 신설도 비롯한 '강호축' (강원도와 충청, 호남을 잇는 경제발전 벨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원 모임은 앞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등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철도 비전과 관련한 예산을 요구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박주선·주승용·김관영·정운천 의원, 평화당 정동영·박지원·유성열·장병완·황주홍·김경진·이용주·정인화·최경환 의원, 무소속 이정현·이용호 의원 등 전체 호남 국회의원 28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25

## 지스트, 스물다섯 빛나는 청춘

QS 세계대학평가 4년 연속 세계 TOP 3 (11년 연속 국내 1위)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

매일경제 대학창업지수 2년 연속 1위

한국경제 이공계대학평가 기술이전수입 2년 연속 1위

---

### 지스트 설립 25주년 기념행사

기간: 2018. 11. 8. (목) ~ 11. 15. (목) 장소: GIST 오룡관·잔디광장

<b>11. 8. (목) ~ 15. (목)</b>	연구·창업성과 전시회 09:00 ~ 18:00
<b>11. 8. (목)</b>	<b>빛나는 청춘 버스</b> (누구나 참여가능한 과학 체험 버스) 14:00 <b>학생 축제</b> 동아리 공연 16:30 초청가수 공연 및 불꽃놀이 20:00 - 다이내믹듀오, 10cm(십센치), 청하
<b>11. 9. (금)</b>	<b>지스트 설립 25주년 기념식</b> 14:00 조형물 제막식   축하 공연   GIST 25 + 25 <b>GIST Culture Night</b> (세계 각국의 문화·음식 소개 부스 및 공연) 15:00
<b>11. 13. (화) ~ 15. (목)</b>	<b>국제 포럼</b> AI(인공지능) 포럼 13. (화) 기후적응 포럼 14. (수) - 15. (목) CT(문화기술) 포럼 14. (수) RISE(차세대에너지연구소)연차 포럼 15. (목)

\* 지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GIST 홈페이지(http://gist.ac.kr) '설립 25주년 행사' 게시판 참조

문의 \_ GIST 대외협력팀(062-715-2024)

## 남보다 무서운 가족...어쩌다 가정은 지옥이 됐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 (243)가정 폭력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했던 이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1905~1980)이다. 사르트르는 나 자신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 때만이 절대적인 주체로서 존재하지만, 타인은 나 자신을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타인의 힘에 의해서 나 자신이 판단되고 결정되면서 비주체적인 대상이 되는 순간,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특히 가정 폭력 폭력보다도 더 무섭고 끔찍한 가정 폭력 사건을 보면 가족이 타인보다 더 공포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하여 궁극의 안식처이자 구원의 장소, 가장 화기에 애하고 따뜻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이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지옥보다 더 피폐해질 수 있다 말인가. 냉혹한 현실 앞에서 가슴 쓸어내리기만 할 일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영국의 조각가 헨리 무어(1898~1986)의 작품 '가족' (1950년 작)을 보면 다양하게 앉아있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함께 나눠 안으면서 마치 세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를 닮아보라"고 말하는 듯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



헨리 무어 작 '가족'

목한 장면이지만 이 평범한 가족의 모습과 같지 않은 군상도 많다는 생각이 스며들기만 하다.

헨리 무어는 보수적인 영국 조각계에서는 드물게 일찍이 전위적 작가로 추상적 형태를 조각해 왔는데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조각에 대한 관점이 크게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풍경, 인간의 비인간성, 이를 회복시키는 예술형식의 치유력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던 헨리 무어는 모성의 상징성에 집착했고 작품은 야외에 놓아야 한다고 고집하기도 했다. 찻을 먹는 위대한 어머니의 현존과 가족의 모습을 통해 자연 풍경이 비추어지고 사회가 단란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 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